

# 캐나다의 음주문화와 예방치료대책



조 성 기  
(KODCAR 예방치료본부장)

필자가 보건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캐나다 서부 밴쿠버지역의 “보건국 소속 해독센터 (Detoxification Center)”를 찾은 적이 있다. 대화 도중 서로 뜻이 안 통해 한동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는 양국의 정책당국자 간 중독문제의 해결을 위한 철학과 규범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서였다.

“만약에 불법 중독물질을 복용한 환자가 찾아왔을 때 경찰과 연락을 어떻게 갖는가?”를 물었더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었다. “그 이유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캐나다에서는 불법 중독물질의 판매는 법인 문제이지만 복용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었다.

즉, 캐나다는 불법 중독물질의 복용자를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건 차원의 치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을 복용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사람들에게 대해 법적인 징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 건강상의 문제나 일종의 질병으로 취급하여 정부차원에서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규범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이러한 규범이 알코올 정책에도 원용되어 캐나다 연방정부의 음주문제 정책을 기본적으로 금주정책이 아닌 위험최소화(Harm Reduc-

## ■ 目 次 ■

1. 캐나다의 음주사
2. 캐나다인의 음주
3. 최근의 음주동향
4. 음주문제
5.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책
6. 예방과 치료정책

tion)정책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는 적정음주량의 공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실행, 예방과 치료의 균형 잡힌 프로그램 실시로 표현되고 있다.

## 1. 캐나다의 음주사

유럽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해 오기 전에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술을 안 마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인들은 물물교환을 할 때 원주민으로부터 모피를 받고 이에 대해 브랜드와 럼을 보상품으로 주었다. 처음에는 양쪽이 똑같이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을 주고 받은 것이었는데 한편은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몸이 거꾸로 추워지거나 손상을 입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처음 술을 접하자마자 부터 원주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과음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캐나다의 추운 날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캐나다 원주민이 알코올 문제가 가장 많은 집단 중의 하나가 조사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음주문화가 잘못되어 있고 음주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초기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중반부터 술은 캐나다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 노바스코시아의 주지사인 벨허씨는 “정부는 술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이유가 술로 인한 조세수입이 주 정부의 재원을 증대시키기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일부 국가의 정책당국자들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 경우 보건정책 당국자들의 정책과 상호 충돌하여 정책부처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점차 국민건강이 중요해져 가는 시점에 보건정책 담

당자들의 입김이 커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니 이러한 논란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캐나다의 초기 맥주제조 광경

원주민들이 캐나다 최초의 과음자 집단이었지만 과음자 집단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넓은 대륙을 개발하기 위해 육체노동을 많이 하였던 광부, 철도 노동자, 나뭇꾼 등이 과음을 하고 따라서 주세를 많이 낸 사람들이었다. 초기 캐나다인 들이 술을 마신 장소는 술집, 길가의 여관 등이었다. 캐나다에서는 교회도 음주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유럽 가톨릭의 허용적인 전통이 캐나다 가톨릭에도 그대로 전수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알코올의 소비량은 요즘 캐나다인 들의 음주량 보다 25 - 30%가 높은 수준이었다.

19세기 초에 캐나다도 당시 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주운동에서 예외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금주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알코올이 도덕적 타락과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주로 중간 계급의 사람들, 앵글로 색슨 인종들, 신교 근본주의자들, 농촌 사람들이 금주운동을 지지하였다. 더욱이 미국에서 유입된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컸다. 캐나다인들도 처음에는 음주를 금지하면

모든 도덕적 타락이 사라질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금주운동이 가장 많이 호응을 얻은 곳은 가톨릭 교회가 적정 음주를 주장한 '퀘벡' 지역이었다. 금주를 주장하던 곳이 아니라 적당한 음주의 잇점을 강조하고 음주에 관대하던 지역에서 금주운동에 적극 호응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금주법 발효직후 버려진 술

음주자는 물론이고 술 판매자와 유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1907년 금주법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지방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되었고 다른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캐나다의 금주법은 아주 단명으로 끝났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음주가 멈추지를 았았고 밀주 유통시장이 지하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사라질 줄 알았던 부패, 폭력, 빈곤, 각종 범죄, 질병과 다른 비참한 상황들이 금주와 상관없이 여전했으므로 현명한 캐나다인들은 사회악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금주운동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반응에 실망했고 금주법의 시행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캐나다인의 음주

캐나다는 춥다. 추운 지방에서 몸을 데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어찌

한 역사적·문화적 이유를 대는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다. 캐나다인이 여가를 보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조사된 바에 의하면 “친구와 TV로 야구나 하키 경기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자연적 조건도 그렇지만 술을 뺀 캐나다인의 사교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캐나다인의 음주 실력은 선진국의 중간 정도인데, 15세 이상 전인구를 대상으로 ‘작년도에 적어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이 조사 결과 72%였다. 1인당 평균 순알코올 소비량은 9.5리터, 주류 판매액은 104억 달러로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월등한 미국의 84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그 음주량은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인 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일단 캐나다의 깨끗함에 반하게 된다. 그러나 토론토의 길거리에서는 옹기종기 모여, 그야말로 하루 종일 앉아서 노닥거리는 젊은이들(Street Youth)을 빈번히 볼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알코올과 담배는 물론 마약에도 손을 댈다. 소위 길거리 청소년들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가 예외 없이 심각하게 거론되는 곳이 또한 캐나다이다. ‘깨끗함과 더러움이 공존하는 곳’이 캐나다라고 평가한다면 과한가?

토론토 최고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 연구기관인 중독연구재단(Addiction Research Foundation)의 룸(Room, R.) 박사는 “현대의 모든 사회에서 약물 중독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 3. 최근의 음주 동향

금주라는 ‘큰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취자, 중독자, 술로 인한 사망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도 1960년대까지는

관련된 조사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껌의 조사결과 1950년대에는 음주자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그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78년 이후 전국적인 음주조사 기관이 세 곳이나 생겨났다. 캐나다는 '전해에 적어도 한 잔 이상 마신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을 선택했는데, 15세 이상의 음주인구는 1978년 82%에서 1994년 72%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 달에 적어도 1회 이상 마신 '빈번한 음주자'도 같은 기간 중에 줄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이하 마시는 음주자는 늘었다.

전국적인 전화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음주자의 3/4이 1주에 한 번 이상 마시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하가 25%이고, 38%는 1주일에 세 번 이상 마신다. 11%는 1주에 4회 이상이나 마신다.

1992년 통계를 보면 한 달에 1번 이상 마신 음주자가 남성이 87.4% 여성이 73.2%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캐나다는 적정량 마시는 사교적 음주자가 늘고 적게 마시는 사람은 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매일 마시는 사람의 경우 남성은 10.2%, 여성은 3.7%로 나타나 남용자 및 중독자는 큰 변화가 안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자 평균을 보면 1주일에 평균 3.7잔을 마시고 있다. 대체로 음주자의 절반쯤은 한 번 마실 때 다섯 잔에 가까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아하는 술은 맥주, 증류주, 와인의 순이다. 1990년의 맥주 판매량이 50억 달러로 미국의 42억 달러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증류주가 31억 달러, 와인이 17억 달러 수준이다. 음주자들은 술집에서 마시고, 파티, 결혼식 등 사회적 모임에서도 마신다. 주로 저녁 때 많이 마시며, 집이나 점심시간, 스포츠를 할 때는 덜 마신다. 캐나다도 술집에서

취객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주지 않을 권리가 바텐더에게 주어지는 곳이 캐나다인 것이다.

캐나다인은 혼자서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친구, 부부, 연인, 가족, 친척 등의 순으로 함께 마시는데, 60% 짝은 부인이나 연인, 30% 정도는 가족과 친척, 10% 정도가 직장 동료와 마신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친구나 직장 동료와 주로 마시는 것과 비교하면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음주를 많이 하고 있다.

캐나다인도 음주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허용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음주에 대해 수용적이며, 만취해도 좋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된다. 여성의 음주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다. 캐나다에서 파티나 사교 모임에서 술 마시는 여성을 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광경이다.

그러나 작업 중 음주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면, 주로 맥주를 마시지만 점심시간 음주도 상당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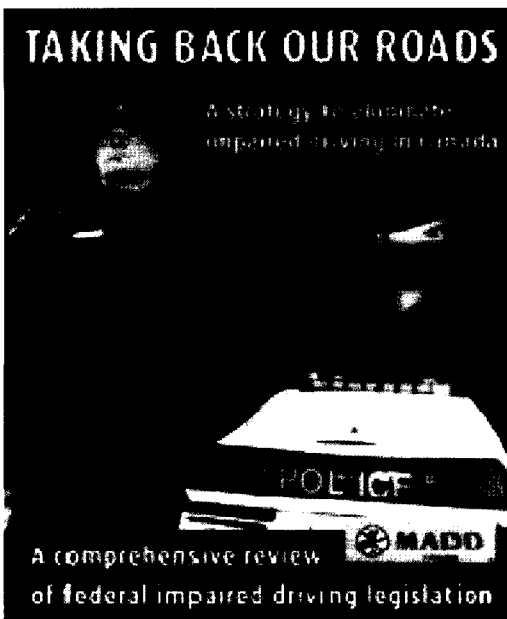
어쩌면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노인음주의 문제가 캐나다에서도 여전하다. 연령별 음주빈도를 보면 매일음주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 13.2%나 된다. 이는 6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평균 2-10%로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큰 것이어서 고령화사회가 진전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모든 나라에서 경계해야 할 정보를 캐나다의 사례가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 4. 음주문제

캐나다인들도 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들로 고통을 받는다. 캐나다인의 41%가 “과

거에 술로 인해 어떠한 형태이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며, 11%는 “과거 1년 간 술로 인해 한 가지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12% 정도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11%는 “친구 관계와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었다”고 하였다.

음주로 인한 경제적 총비용을 ‘캐나다 물질남용센터(CCSA)’는 184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2.7% 수준이다. 이 추산액의 60%는 생산성 손실로 가장 크며, 나머지는 작업장 손실액, 예방 및 치료 비용, 화재와 교통사고 비용, 행정 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음주운전반대 어머니 모임(MADD)의 예방활동

알코올중독자가 47만 6,8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그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캐나다도 음주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통사고 중의 가장 큰 원인이 음주운전이다. 16세 이상의 인구 10만 명 중 677명이 음주운전 범칙자라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의 음주문

제는 줄어들고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수, 건강상의 문제, 음주운전 사고 등 각종 통계치는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5.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책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술의 제조, 수입, 수출을 관장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에서 술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는 등 다양한 주류 통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국산 맥주와 와인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만 증류주, 수입 와인, 맥주의 판매권은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허용적인 퀘벡시에서는 식료품점에서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가 많다. 그렇지만 현재 술을 파는 장소와 판매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술값이 비싸 미국으로 술 쇼핑을 일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1991년의 술 쇼핑 여행객은 6,020만 명까지 되었다. 캐나다 달러의 약세와 관세법의 강화로 줄기는 했지만 그 수는 아직도 적지 않다. 교역 자유화 이후 술값이 점점 싸져 술 소비를 부추기고 있지만, 영세민에게는 아직도 술값이 비싸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액체 구두액을 먹는 중독자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앨버타 지역에서는 이른 시간에 술을 싸게 팔아 음주 피해를 줄이는 제도까지도 생겨났다.

미국에서 음주 연령을 올린 것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법정 음주연령을 20~21세에서 18~19세로 낮췄다. 뉴브런즈윅과 매니토바에서는 부모 감독하의 음주를 허용하고 있고,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 주 등에서는 미성년자의 주택내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보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술집에게 내리는 벌칙금이 적지 않지만 이러한 현상이 빈번함은 캐나다인의 술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연방법에 맥주와 와인과 같은 저도주에는 술 광고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알코올 도수 7% 이상인 증류주도 광고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연방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증류주에 대해서도 술 광고를 허용했다. 한편 주류업체와 사용자 단체들은 스포츠 행사나 문화 이벤트 사업 등에 광범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 증류주의 유명 브랜드 캐나다안 클럽

정부가 하는 알코올의 통제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찬의를 표하고 있다. 식료품점에서의 술 판매에 대해 67%가 반대하고 있다. 술병의 건강에 대한 경고 표시에 찬성이 70%, 술 광고에 대한 반대도 상당수 되며, 주세의 증대에도 절반이 넘는 수가 반대하지 않는다. 법정 음주연령을 올리자는 의견에도 절반이 찬성하고 있으며, 주류 판매업소의 영업 시간을 줄이자는 데에도 찬성이 많다.

## 6. 예방과 치료정책

음주에 대단히 허용적 태도를 보이고 술 문

제가 많은 만큼 캐나다는 예방 프로그램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방사업은 최근 특히 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에 주력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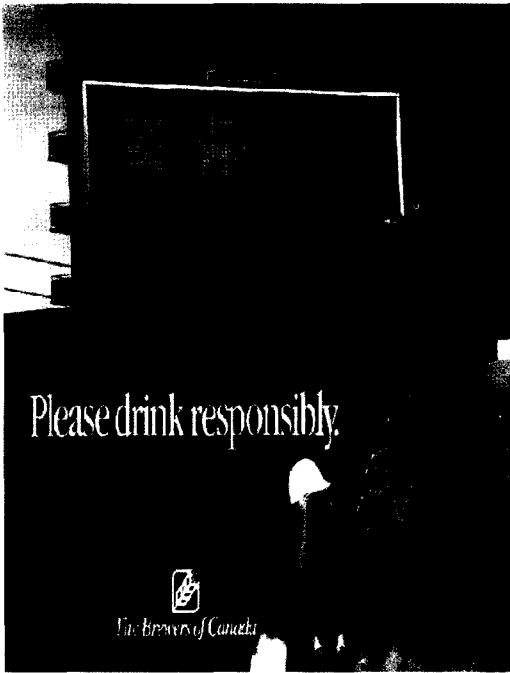


캐나다 바커스의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 포스터

예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안적 수단인 사회 기술훈련,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대국민 인식 계고를 위한 예방사업도 건강 캠페인, 반음주 역광고, 술집 종사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

민간에서도 주류업계를 필두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예방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주류업계는 맥주협회를 중심으로 적정음주의 권장, 미성년자와 임신여성의 음주문제예방과 음주운전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치료는 입원 프로그램 위주였는데 입원 및 통원치료 프로그램으로 다원화 하고 있다. 이는 비용효과성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고객의



캐나다맥주협회의 적정음주 권장 거리 포스터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입원치료 위주의 치료에서 외래치료로 변화하는 노력이 30-40년은 걸렸지만 그 결과 의료비용이 1/3이 절감되었다는 경험은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 물론 다른 선진제국처럼 해독 시설, 장단기 거주시설, 외래 프로그램, 낮병원, 밤병원 등이 주로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분리되어 각각 대상을 달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그 수가 상당히 많아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중심으로 한 자조집단의 활동도 활발하다.

캐나다인들은 주로 술과 관련된 문제를 생활습관에 기인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비용절감이라는 것이다.

알코올 문제는 특히 문제가 진전이 되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완전한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예방사업에 주력을 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캐나다인들은 알코올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증진, 기초예방, 문제축소, 초기 관여, 치료재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노력의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독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중독문제 대응 후진국에는 좋은 귀감이 된다.

Drinking when we are not thirsty and making love at all seasons, madam that is all there is to distinguish us from the other animals.

목마르지 않을 때 술을 마시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는 전부일세.

- Pierre-Augustin De Beaumarchais -

## 唐詩 감상 / 崔敏童의 詩

## 宴城東莊

일 년에 한 번  
 이 봄도 또 가는데  
 백 년 동안의  
 백 년 사람은 없다.

이 꽃 속에서  
 몇 번이나 취하겠는가  
 가난을 핑계 말고  
 얼마든지 술을 사라.

一年又過一年春  
 百世曾無百歲人  
 能向花中幾回醉  
 十舌沽酒莫辭貧